고은 불교 대하소설

다시 동행

〈37〉

이제 합두는 그저 아름다운 니승(尼僧)만이 아니다. 그의 아름다움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어떤 거룩함이 요구되고 있었고 그 거룩함에는 필수적으로 범속한 사람보다 아주 영특한 동물들이 본능적인 힘에 의해서 먼 곳이나 다른 세계에 대한 직감을 가진 것처럼 그런 직감이 스며나오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그녀가 우녀와 함께 지낼 수 있었던 행운 때문인지 모른다. 누가 누구와 함께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녀를 통한 합두의 놀라운 발전이었다.

고름지기 악우(惡友)를 멀리하라는 경책은 이 토록 선우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경지의 합두가 염마의 세계에 비치되어 있는 정파리의 거울을 그의 영식(靈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그녀의 경지가 우녀의 경지에 미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바로 이런 사실을 우녀 쪽에서 재빨리 짐작한 뒤 후원의 일도 그녀가 합두를 부리는 것으로부터 그 일을 두사람의 순번으로 나누어 하게 되었다.

밤 입정을 마치고 나서 그녀들의 처소로 돌아왔다.

"아무래도 합두스님은 이승에 재미가 없나보군요."

말투가 깎듯하였다. 우녀의 그 오래된 집의 기둥과도 같은 오만이 어디로 사라진 것 같았다.

"하기야 이승 이 사바세계가 아주 좋아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말에도 합두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지금 그녀는 어느 누구와의 대화 따위에 섞여 들어갈 여지가 없게 아까의 갈대 종사에서 이어지던 염마의 세계에 대한 관심에만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옷도 갈아 입지 않은채 그녀의 잠자리에서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오직 거울만이 그녀의 투명한 의식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었다. 여기서 투명하는 것은 우녀나 합두들의 신령스럽기까지 한 의식이란 그들의 눈과 대상 사이에 어떤 지식이나 이치따위의 막(膜)을 개재시키지 않는 직시(直視)를 뜻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들은 이전의 세계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현실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상상의 궁극에 있는 현실인지 모른다. 거기에 도달하기까지는.

거울은 그 표면의 밝은 것과 달리 그 이면은 한없이 깊은 어둠의 저쪽인 것이다.

동시에 그 거울은 한 인간이 살아 온 모든 과거가 하나도 빠놓지 않고 비추어져 있는 행위의 만원(滿員)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일체의 가감없는 기록이기도 하다.

어떤 변명도 효과가 없는 극사실(極寫實)의 세계가 바로 거울의 밝은 표면에 나타남으로써 그것이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까지 지은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그 거울이 바로 심판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 사령(死靈)이 다급한 나머지 어떤 거짓말을 늘어놓는다면 염마의 세계를 주재하는 염라대왕이 그 거짓말의 혓바닥을 뽑아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염라대왕은 결코 사납지 않다. 본디의 상고시대 인도의 이름은 '야마'인 이 염마의 주재자는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인간으로써 최초로 죽은 인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 죽은 뒤의 세계에 최초로 도달함으로써 그곳의 주재자가 되었던 것이다.

야마의 세계는 하늘에 있었다. 늘 음악이 흐르고 꽃이 만발해 있고 향기가 계절을 모르는 상락(常樂)의 세계였다. 그 누구도 그 세계에서 순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하늘 속의 그 무아(無我)처럼.

그런데 그런 세계에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본래의 세계가 아니게 되어서 거기에 태어나는 자 가운데 악업이 늘어나기에 이르러 아주 혼탁한 세계로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때 야마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져서 악업을 지옥으로 보내어 수용할 수 있었다. 야마는 이런 과정에서 천국보다는 지옥을 관장하는 일에 여념이 없게 되었다. 그가 사납지 않은 것은 본디 그가 천국도 관장하는 주재자였음을 기억하게 한다.

어쨌거나 이런 염마의 거울에 날날이 비추어진 선업과 악업에 따라 7일동안의 유예를 받은 자는 그 7일 뒤에 변성왕(變成王)의 재판을 받게 된다.

변성왕은 저울과 염마의 거울과 같은 거울을 함께 사용해서 아주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거울의 이면! 그 어둠 저쪽의 세계야말로 거울의 표면에 비추어진 일체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바로 그것이 염마의 거울인 것이다.

합두의 눈이 그 거울에 비추어지는 그녀 자신의 지난 날을 미리 볼 수 있었다. 이제까지 그가 살아온 것이 미리 그 거울에 비치어져 상상세계처럼 그려지고 있는 그녀의 자취들이야말로 그녀를 이 세계만의 사람이 아니게 하였다.

그녀는 이승에 있되 이승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눈빛에는 사람의 그것이기보다 어떤 귀기(鬼氣)가 서려있는 것이었다.

"합두스님!"

이라고 큰소리로 불러서야 이미 촛불을 꺼버린 어둠 속의 방에서 그녀자신의 눈에서 쏘아대는 파란 눈빛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가슴과은 진땀으로 적셔져 있었다.

그녀의 영혼이 커다란 체험을 하고 있는 동안 그녀의 몸은 땀으로 젖어있을 만큼 아주 힘겨운 역할을 하는 냇적 운동을 계속했던 것이다.

그녀는 옷을 입은채 풀썩 쓰러졌다.

그때 우녀가 그녀에게 어머니나 언니처럼 다가가서 합두가 입고 있는 옷을 하나하나 벗겨주었다.

이상한 것은 그렇게 옷이 벗겨지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한채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는 가사(假死)상태로 된 합두였다.

두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큰 10여평의 그 늙은 나신, 있는 그대로의 무심(無心)의 나신, 어떤 시작이기도 하고 어떤 종말이기도 한 그 지극한 아름다운 형상으로서의 나신, 하지만 그것이 혼백으로부터 격리된 죽음일진대 바로 썩기 시작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악취와 가장 보기 흉한 부패물로 바뀌어진 나신이 그 순간의 무상(無常)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의 실체를 유감없이 드러내주고 있는 나신이었다.

어떤 여색에 굶주린 사나이가 이 나신에 마구 덤벼들을 수 있겠는가. 어떤 늙은 소경이 이 나신에 떨리는 손으로 더듬거리며 다가올 수 있겠는가. 어떤 부자가 만금을 바쳐 이 나신을 살 수 있겠는가.

그녀는 아무런 침해도 접촉도 불가능한 대상으로서 거기 누워있었다.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이 나신의 합두를 한번 흘끔대는 촛불 뒤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던 우녀가 다시 한번 감탄해마지 않았다.

그 뒤로 우녀는 점점 그녀의 정신이 비정상적으로 되어갔다. 합두의 눈이 쏘아대던 귀기가 어느덧 그녀의 것이 되어 그 귀기 서린 눈빛으로 합두의 나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이 난폭하게 열리면서 그들의 방안에 들이닥친 사나이가 있었다. 불이었다. 불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아무런 말도 개념 깨닭이 없이 그가 우녀를 잡아 이끌어 밖으로 내팽개친 것은 그 다음의 순서였다. 우녀의 정신상태가 평상 그대로가 아닌 상태에서 난데없이 나가떨어지자 그 니승 처소의 바위로 된 마당 끝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한동안이 흘러갔다. 불이는 합두의 나신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마치 우녀가 노려보던 것을 교대하기라도 한 것처럼.

한동안이 흘러갔다. 불이는 실컷 합두를 마치 그 나신의 모든 부분이 다 뚫어지도록 쳐다본 뒤 방안의 촛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그 촛불을 갈대지붕에 던졌다. 그런 뒤 그 촛불이 지붕에 붙붙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한 그가 방안으로 들어왔다.

"함께 갑시다. 합두스님!"

이라고 말하고 그 합두의 나신 곁에 그도 누웠다. 그도 합두처럼 나신이 되었는지 그럴 겨를이 없었는지 모르거니와 이미

> "함께 갑시다. 합두스님" 불이는 합두의 나신 곁에 누웠다. 이미 그 처소의 지붕과 외를 엮은 벽들은 시뻘건 불이 붙었다. 그 불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처소의 지붕과 외를 엮은 벽들은 시뻘건 불이 번져서 밤 2경쯤의 바닷바람에 의해서 눈깜짝할 사이 없게 집 전체가 불 속에 쌓여버렸다.

그 불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타기 시작한 것이다.

우녀가 마당 끝의 바위에 내던져져 머리를 찧고 혼절한 뒤 깨어난 것은 그들의 니승 처소가 불로 덮여서 그 불의 뜨거움이 그녀의 의식을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합두스님!"

라는 소리 밖에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고 우녀는 눈물범벅 거품범벅의 얼굴에 불빛이 얼룩지고 있었다.

이미 갈대정사 큰방의 인담과 과현 수원 수월들도 뛰쳐나와 불덩어리가 된 집채에서 좀 떨어져 서 있었다. 그들 중의 누구도 바닷물이라도 퍼다가 불을 죽일 생각이 날 수 없었다. 왼나 불길은 세고 불에 타는 집채는 이제까지 불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활활 타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본즉 아까 그 불 속에서 어떤 비명이 들린 것 같기도 하였다. 그 비명은 남자의 것이었다. 불이의 것이었다.

그렇다면 합두는 이미 그의 혼백이 몸을 떠난 상태로 누워있었던 것인지 모른다. 그 이승 최후의 아름다운 나신으로 완성된 채 그녀는 다른 세계로의 긴 여행 첫걸음에 나서고 있었던 것인가.

아름다움이란, 아름다운 여자란 그 궁극에서는 성(性)을 죽이는 일로써 그 보상(補償)없는 역할을 마치는 것인가.

> 최후의 아름다운 나신으로 완성된 채 그녀는 다른 세계로의 긴 여행 첫걸음에 나서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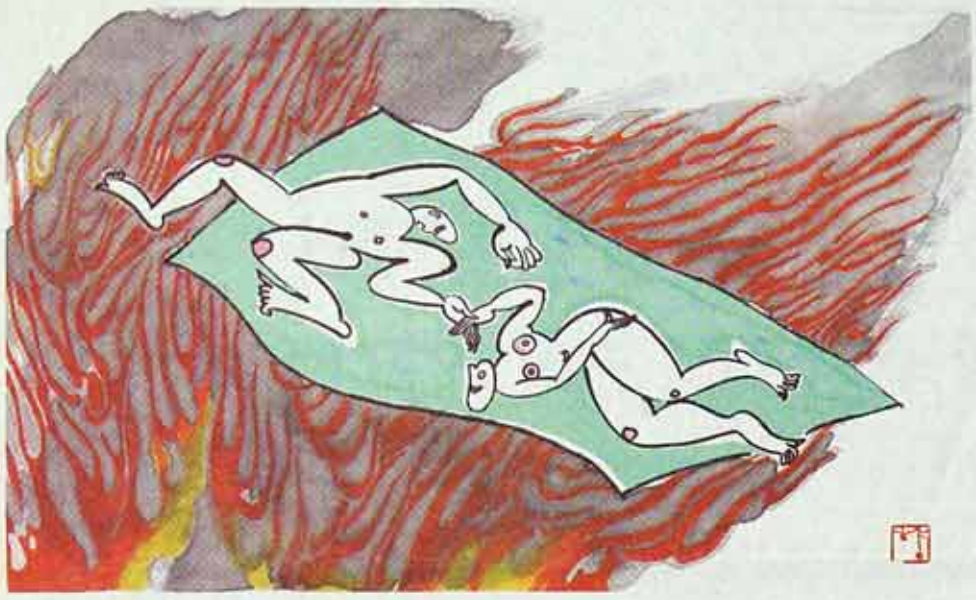

그림 · 조향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고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자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 단, 독자 여러분의 성의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은 게재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 (02)737-0697

활천당 한약방 (대구 약전골목 중간)
한약의 명소 40년 전통 간염 간경화증 상담 요함
•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86-1 (053-252-8274)

조 문 객 —절대증식—
• 요가집 · 대구일 등 • 홍아일 · 조일이 · 뽀이즈 등
이조 924-9211 고남 925-4961
고도용 제공 · 정식요청 처리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총판 윤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재기와 영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뜻 좋아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내외 벽화 · 병풍 및 액자화 작품
•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불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사내 · 지방 · 외국 어디나 그림만 보내 보구작품을 해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동작구 청파가동 173-1 전화 (02)3273-0081
온라인 국민은행 상명지점 823-24-0171-326(우만)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지회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 · 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불교용품 범종주조회사 聖鐘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 (02)733-6141 (서울사무소)
☎ (0331)283-2083 (공장)

윤 조각실(불교미술원)

■ 부처님 조성
■ 청동불 조성
■ 대불조성
■ 천불전
■ 개금
제14회 불교미술전 우수상수상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16-1
전화 713-3560, 214-8963

般若 설비 종합공사
서울시 지정업체 허가 21-304호 기름, 가스보일러 1급, 2급 기능사가 시공함
불심과 공익 완벽한 시공 A/S 철저히
APT인테리어 대표:허성호(공법)
전화번호 주 야 4242-511, 4822-511, 4252-025 FAX 477-2751
호출기 012-274-1727, 012-804-2025 휴대폰 011-267-2510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73-11(삼전불교종합복지회관 옆)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 · 8월 검정고시 국졸 · 중졸 · 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 · 재수생 · 직장인 · 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 쉽게 풀이된 최신 「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대학 졸업과정 | ⊙ 철저한 1 : 1 「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입계 허락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우(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 → (영 · 수) 「비디오강좌교재」 특별제공
출석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 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무고하고 부끄러워서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8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작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전성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무릎쓰나 저와 같은 입장 가지고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 최경일(남, 27세) 드림 —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우회안정빌딩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씨비스 080—023—4600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 법상 · 경상
• 이천대대사 대웅전 주지단 단월 경책
• 서울(백흥사) 법상 주지단 동인 조전원
• 충청(장보사) 대웅전 문짝
• 부산(범룡사) 대웅전 주지단 법상 경책
• 마산(진관사) 대웅전 주지단 문짝
• 보은(만보사) 대웅전 문짝 단청
• 단양(보경사) 대웅전주지대단월경책경상
• 서울(백월사) 보조불사 그외 다수 시공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팩 스 012-210-1401
趙貴玉 합장